

음정 이해를 위한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장문권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실용음악과

e-mail:moongunz@hanmail.net

A Study on Educational Methods for Understanding Musical Intervals

Moon-Kweon Jang

Dept of Applied Music, Sangmyung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요약

본 논문은 음악 연주 및 학습에 필요한 화성학의 기본이 되는 음정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그 값을 구하는데 편리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다. 사람 간에 대화에서 같은 언어가 필요하듯이 음악가들 사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음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임시표가 없는 음정의 원리와 구성을 먼저 이해하고 난후에 복잡하고 다양한 음정을 가상의 수직 피아노 속에 음정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여 이해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피아노에 담긴 음정 용량의 변화로 완전음정, 장음정, 단음정, 감음정, 증음정, 겹음정까지 쉽게 이해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게 사례를 통해 연구해본다. 두 음사이의 음정의 양은 항상 같은 이름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본문에서는 음정 도수가 변화된 다양한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초기 학습자들의 음정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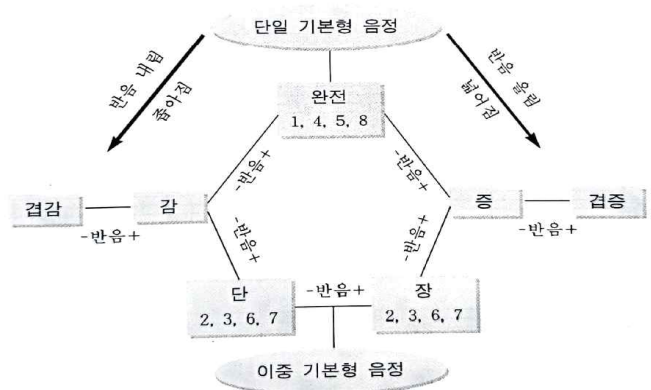
음악을 공부하고 악기를 연주하고자 하는 많은 학습자들이 초기 연습 단계를 벗어나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음악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기초 화성학이론이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음과 음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음정(Interval)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보통 음악가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이는 음악이론의 기초 지식이기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 또한 코드를 이루는 구성 음, 각 코드별 코드 스케일, 확장된 코드 구성음인 텐션 음 등을 표기하거나 그 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정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정 학습 초기에 # 또는 b 임시표가 붙지 않은 음정 정도는 이미 익힌 학습자를 위한 연구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시된 두 음사이의 음정을 가상의 수직 피아노 눈금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학습자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음정의 성질은 두음 사이를 구성하는 온음과 반음의 개수

로 결정되며, 장음정, 단음정, 증음정, 감음정, 완전음정으로 구분된다[2]. 기본적인 음정은 완전음정과 장음정으로 나뉘며, 완전음정은 1도, 4도, 5도, 8도 음정이고 장음정은 2도, 3도, 6도, 7도 음정이다. 이러한 각 음정이 반음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를 겪을 때 음정의 성질이 바뀐다. [그림 1]은 반음의 증감에 따른 음정의 명칭이 달라지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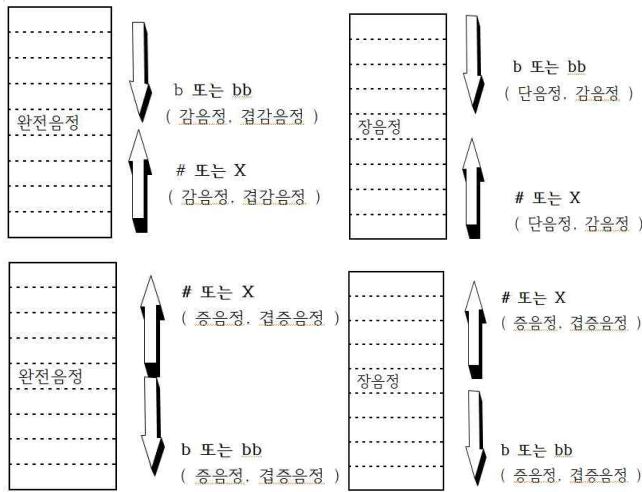


[그림 1] 음정의 성질과 명칭 변화

어떤 음정을 바로 보면서 음들의 도수를 바로 파악하기에는 초기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매우 힘들다. 많은 음정 파악의

경험과 시간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복잡한 원리나 이해보다 단순히 외우는 형태를 택한다면 추후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선 다양한 음정들의 관계에서 임시표가 붙지 않은 음정의 간격을 학습하고 익히고 난 후, 여러 복합적인 임시표가 붙은 두 음정의 간격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수직 파이프를 사용하여 음정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2]는 [그림 1]의 표식을 가상의 파이프에 눈금을 적용하여 다시 만든 것이다.



[그림 2] 가상의 파이프 눈금에서의 음정 변화

2.1 임시표가 붙지 않은 두음의 음정 간격

음정 간에 임시표가 붙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진 음계는 C Major 음계이며 [그림 3]에서와 같다[4]. 임시표 없이 D음에서 음계를 다시 나열할 때는 D Major 음계가 아닌 도리안 스케일을 적용된다. 이렇게 임시표가 없는 음계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E, F, G, A, B음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E프리지안, F리디안, G믹솔리디안, A에올리안, B로크리안이 나타난다.



[그림 3] C Major 음계의 음정

학습자는 우선 임시표 없는 두음 사이의 음정을 익혀 놓아야 복수의 임시표가 붙은 음정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아래의 [표 1]은 아래 음과 위 음 사이의 음정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수직으로 나열된 음들이 아래 음이며 수평으로 나열된 음들이 위의 음이다. 예를 들어 아래 음이 G 이며 위의 음이 E

이면 장 6도 음정인 것이다. 반음의 개수와 상관없이 1도, 2도, 3도 등의 도수는 음정의 값을 구할 때는 변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와 C#, C와 Db 음정은 서로 같은 반음 수를 가지지만 증1도, 단2도로 서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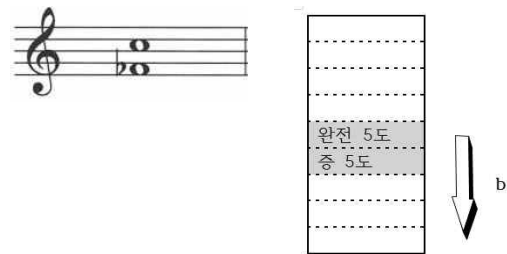
[표 1] 임시표가 없는 두 음 사이의 음정

음	C	D	E	F	G	A	B	C	D	E	F	G	A	B
C	완1	장2	장3	완4	완5	장6	장7	완8						
D		완1	장2	단3	완4	완5	장6	단7	완8					
E			완1	단2	단3	완4	완5	단6	단7	완8				
F				완1	장2	장3	증4	완5	장6	장7	완8			
G					완1	장2	장3	완4	완5	장6	단7	완8		
A						완1	장2	단3	완4	완5	단6	단7	완8	
B							완1	단2	단3	완4	감5	단6	단7	완8

C와 C#은 서로 C와 C라는 관점에서 1도라는 도수에서 변화는 것이고, C와 Db은 C와 D라는 2도 도수에서 변화한 것이기에 도수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완전, 장, 당, 감, 증음정과 같은 음정의 성질만 바뀌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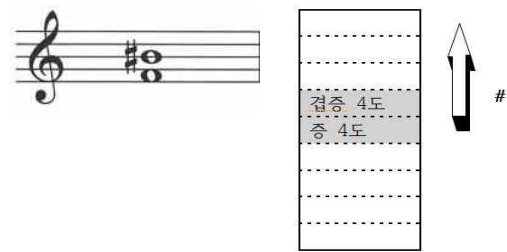
2.2 하나의 임시표가 붙은 두음의 음정 간격

두 음 사이에서 위 음이나 아래 음에 임시표가 붙은 경우는 [표 1]처럼 임시표를 배제한 음정을 먼저 구하고 임시표대로 [그림 2]에서와 같이 움직여서 값을 찾는다.



[그림 4] 증 5도 음정

위의 [그림 4]는 Fb에서 C까지의 음정 간격이다. F에서 C까지는 완전 5도이며 이 상태에서 F가 반음 내려가니 파이프에 양이 반음 증가하게 되며 결국 증 5도가 되는 형태이다.



[그림 5] 겹증 4도 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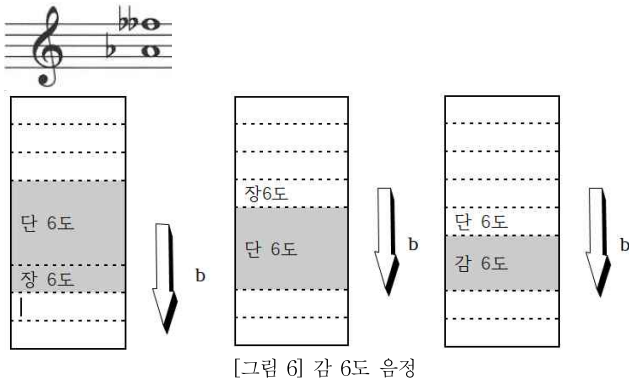
위의 [그림 5]는 F와 B사이의 음정은 증 4도이며 B에 #이 붙어 반음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증 4도에서 반음만큼 양이 늘

어나서 겹증 4도가 된다. 이는 반음 수로 보면 완전5도 일수도 있지만 도수로 보면 4도에서 변한 형태라서 겹증 4도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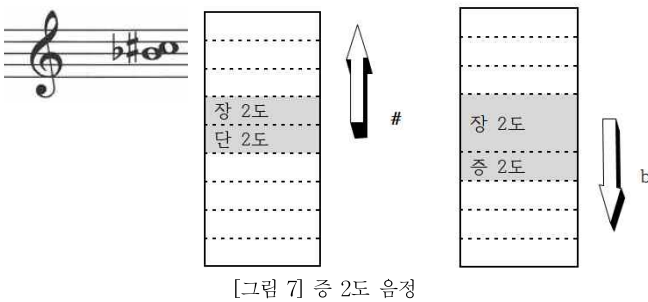
2.3 다수의 임시표가 붙은 두음의 음정 간격

두 음이 각각 임시표가 붙어 있을 시에는 먼저 아래 음 또는 위 음에서 음정의 값을 구하고 이후에 다른 음의 임시표 변화로 음정의 값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그림 6]은 임시표 b이 위 아래로 붙어 있는 음정이다. 임시표 없는 음정은 A에서 F까지 단6도이다. 이 음정에서 아래 A에 b이 붙어 아래로 양이 늘어나서 장6도가 되며, 다시 F에서 b 하나로 인해 단 6도로 변화하고 이어서 b을 한 번 더 거치면 감 6도로 음정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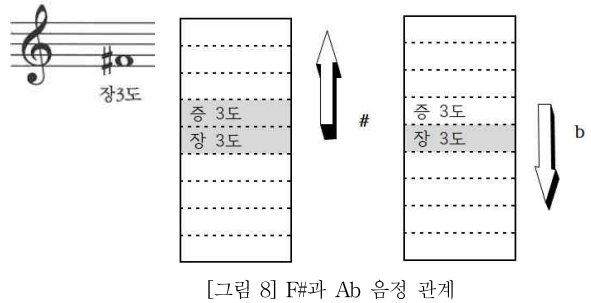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7]은 아래의 음은 b으로 인해 양이 늘어나고 위에 음 또한 #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음정의 양이 확장 되었으나 도수 자체는 B와 C라는 음의 단 2도의 2도수는 변함이 없다. 단2도에서 두 번의 증가로 인해 결국 장2도를 거쳐 증 2도로 되는 음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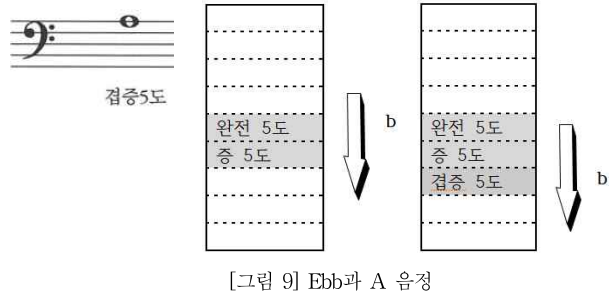
2.4 제시된 음에서 요구하는 음정

아래의 [그림 8]은 아래 음이 제시된 가운데 지시하는 위의 음정을 구하는 방법이다. 우선 3도 간격의 음은 위로 A이다. 이제 F와 A의 실질적인 음정을 파악해보면 장3도이다. 하지만 F에 #이 있어 반음이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증 3도이다.

결국 양을 줄이려면 A에 b을 붙여 양을 반음 줄이면 장 3도가 되며 해답은 Ab이 된다.



아래의 [그림 9]는 제시된 음에서 아래로 요구하는 음정을 찾는 방법이다. 우선 A와 아래로 5도 도수를 가진 음을 파악하면 E이다. E와 A사이의 음정은 완전 5도 음정이다. 원하는 음정인 겹증 5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음의 양이 두 번 늘어나야한다. E에서 bb 되어야 겹증 5도 음정이 완성된다.



3. 결론

두 음사이의 간격은 실제 연주 시와 화성학적인 접근과는 서로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 결국 두 음사이의 간격에서 반음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음의 기보나 음악가들의 소통에서는 정확한 답과 그 명칭이 정해져있다. 음정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수직 파이프에서 그 양이 증감함에 따라 음정의 값이 변화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그 실효성은 학습자 마다 다르겠지만 음정을 찾는 여러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길 기대하며 학습자들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쓰이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https://ko.everipedia.org/wiki/lang_ko/%EC%9D%8C%EC%A0%95 2021년 10월19일 검색.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40444&cid=40942&categoryId=33004> 2021년 10월19일 검색.
 [3] 조효임, 이동남, 주대창, “알기 쉬운 음악통론” 태림출판사, P65, 2월 2015년.
 [4] <https://blog.naver.com/hengwoona/221983169455> 2021년 10월19일 검색 인용.